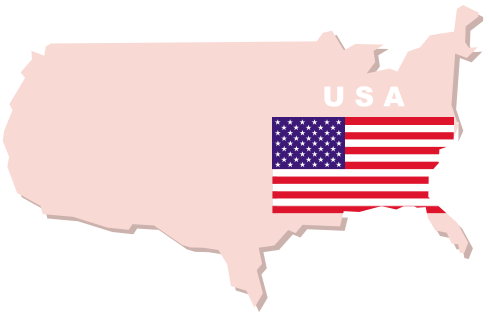
미국 미시간주의 고용정책



미시간주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21세기 고용기금'을 설립했다. 동 기금은 미시간주 기업의 기술사업화,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창업 및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미시간주 산업 개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의 공장 근로자 수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2만 9,800명이나 증가하였다고 미국 노동통계국을 인용해 보도했다[1].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제조업 일자리 창출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다.

현재 미시간주는 기존의 첨단 자동차 및 관련 신소재와 생명공학에 대체에너지, 보안장비 등을 추가하여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미시간주가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3대 엔진은 첨단기업의 인프라 구축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21세기 고용기금, 기업지원기관으로서의 SPARK, 혁신클러스터로서의 SmartZone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기금의 설립

미시간주는 미시간개발공사를 통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21세기 고용기금' (21st Century Jobs Fund)을 설립했다. 동 기금의 설립 목적은 미시간주의 사업화 및 고용창출 잠재력 향상, 투자촉진, 외부 자금원과의 매칭펀드를 통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기금을 통해 추진된 '우수 에너지센터 사업화 지원사업'은 대학과 국립연구소로 하여금 에너지 관련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을 공개하도록 지원하여 미시간주의 고용창출 및 에너지산업 공급체인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선택 미시간기금' (Choose Michigan Fund)은 신산업분야에서 대기업을 미시간주로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그 외에도 후술하는 공공 기업지원기관인 SPARK 내의 'Michigan Works!' 라는 연방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현재 종업원당 1만 달러의 고용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SPARK 등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고 있다.

1) 한국경제신문 2011년 5월 3일자.

▶ 미시간주의 '21세기 고용기금'의 구성 및 예산(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프로그램 및 형태	미시간주 예산투입(A)	민간 및 연방정부 매칭(B)	레버리지 비율(B/A)	총예산(A+B)
사업화를 위한 대출금	89.9	283.1	3.7	373.0
사업화를 위한 보조금	64.9	201.7	3.6	266.6
사업화를 위한 창업전 종자기금	14.8	34.2	2.6	49.0
신기술기금	4.2	17.7	9.1	21.9
투자기금	104.0	257.4	7.3	361.4
중소기업 대출사업	3.5	80.3	26.8	83.8
산업구조 다양화기금	13.4	47.2	7.0	60.6
우수 에너지센터 사업화지원사업	42.9	360.0	8.4	402.9
선택 미시간기금	9.0	270.0	30.0	279.0
총계	346.6	1,551.6	4.5	1,898.2

자료 : Pollina Corporate Real Estate, Inc., MICHIGAN GENERATING JOBS & TAX REVENUE, Dec. 2010, p.6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미시간 주의 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미시간경제개발공사(MEDC)는 창업준비단계의 창업가를 위해 '미시간 창업전 종자펀드'와 '미시간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시간 창업전 종자펀드'는 기업설립 초기 단계에서 사업화에 근접한 첨단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 펀드는 투자파트너의 매칭 정도에 따라 기업당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가 투자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미시간주는 주 내에 있는 기업의 약 70% 정도가 세금감면 대상이고, 기업의 법인세율도 4.9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특히 연간 총수입이 35만 달러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과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미시간주는 창업기업 공제, R&D투자 공제, 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의 기업은 지역 내 투자액의 25%를 보조금 형태로 되돌려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수도권의 제조업 창업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15%(15억원 한도)를 지자체와 매칭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창업 투자보조금' 제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고용 성과

MLSC와 MTTC사업에 '21세기 고용기금'까지 합할 경우, 지역사업 추진 및 기금설립부터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고용규모는 2만 4천여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용 창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시간주와 미시간대가 주도한 '미시간 생명과학 회랑 사업'을 통해 투자규모가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화이저 연구공장을 앤아버로 유치하였다. 또한 화이저가 2007년 앤아버지역의 일부 공장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미시간대는 SPARK와 협력하여 2010년까지 유능한 해고 근로자 88명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21세기 고용기금'을 통해 화이저 연구인력으로 하여금 미시간대에서 연구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였다.

'21세기 고용기금'을 활용한 기업으로부터 많은 성공사례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NeuroNexus Technologies사이다. 동사는 미시간대학으로부터 파생된 뇌신경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창업기업으로 동 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2008년에는 필립스전자와 다년간에 걸친 연구협정을 체결했다. 그 외에도 동 기금을 통해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A123 Systems를 유치하여 기업 상장을 통해 약 4억 달러 가까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억 5천만 달러의 연방예산의 매칭이 이루어졌다. 이런 예산 지원을 통해 미시간주 리보니아에서 생산시설을 확

장할 수 있었고, 350명 정도의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2]에서 수행한 기업설문조사에서는 자금조달이 창업시 도움이 될 요인(32.0%)인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지방 기업들은 고용증대를 위해 인력구득의 용이성(39.3%)과 함께, 법인세 인하(18.6%) 및 저금리 융자 가능 기금 운용(18.0%)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시간주의 '21세기 고용기금'과 유사한 광역경제권 차원의 창업 및 고용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금의 설립을 통해 창업초기의 기업뿐 아니라, 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까지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시간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내 기업의 약 70% 정도가 세금감면 대상이고 기업의 법인세율도 4.9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특히 미시간주는 기업의 연간 총수입이 35만 달러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과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이상은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로 법인세가 설정되어 있다. 법인세 인하가 창업 및 고용촉진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감면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디트로이트 GM본사 근처

▶ 미시간경제개발공사

▶ 미시간대

2) 김정홍, 『가젤지역의 고용창출 결정요인 분석』, 2012. 3(예정)

김정홍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kimjh@kiet.re.kr